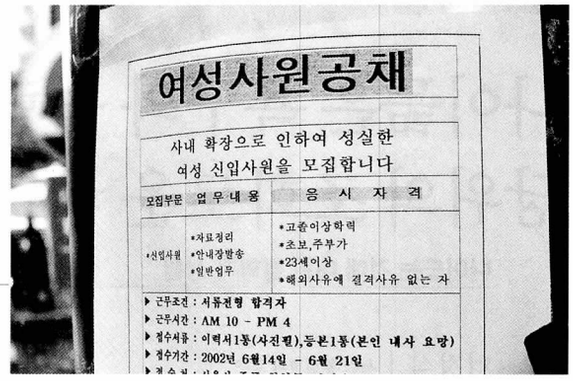
# 나이 차별의 폭력은 사회구조의 반영

## 나이 차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김상태 | 문화평론가




인력시장에서 나이는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작용한다. 사진은 전봇대에 붙은 모집공고.

나이를 빙자한 권위주의와 폭력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충효사상의 왜곡된 강조에서 비롯된 구시대적 발상에 대한 문제제기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김경일, 바다출판사)라는 책이 나오고 베스트셀러 반열에까지 올랐겠는가. 따라서 이 못생긴 나이 차의 폭력을 야단치고 성토하는 일은 이미 진부한 일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는 실천적인 행동강령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한번쯤은 발상을 달리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부턴가 이 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혹은 전통이나 사회 문화적 현상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나아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도 같은 맥락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것이다.

### 나이의 정치성은 사회의 경제구조와 연관돼

나이 차이의 정치적 맥락은 본질적으로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생존 게임의 규칙이거나 재화, 권력, 여러 기회 등을 분배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다. 내가 보기에 이 규칙이나 메커니즘은 전통이나 문화 못지 않게 그 사회의 생산력 수준과 경제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농경 중심의 조선 사회로 되돌아가 보자면 충효 사상과 어른 공경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 체계는 당시 봉건적인 경제 구조에 비춰 사실상 생존을 위한 최고의 규칙이었을지도 모른다. 본래 모든 합리성은 주어진 사회의 합리성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나이 차이를 강조하는 규칙이 어떤 상황에서는 모두에게 최선의 미덕이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평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평가 때문에 이 규칙은 스스로 도전받고 사라져야 할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이제 나이 차이를 강조하는 미덕은 모두에게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만 최선이 됐고 다른 누군가에겐 억압과 착취의 채찍으로 돌변한 것이다. 실은 도전과 비판 자체가 사회구조 자신에 의해 준비됐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할 사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축적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봉건적 권위주의의 기제를 바탕으로 이뤄어지고 있다면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도덕적 성토를 강화한다 해도 별 의미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위선과 거짓을 누적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는 나이 차의 폭력을 비판했으면서도 사회 체제에 편입된 순간 옴짝달싹할 수 없는 봉건적 축적구조에 묶여 과거에 자신이 비난했던 바로 그 양태를 구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 딜레마를 둘러싼 모순과 투쟁은 참으로 다양한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자본은 그 악명 높은 문어발식 경영체제를 스스로 견디지 못한다. 지난 IMF의 충격은 이런 한국자본의 세계 자본에 대한 패배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 비해 이미 자기를 살찌워온 봉건적 축적 구조의 달콤함과 기득권적 습관은 좀체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체제 안에 포괄돼 있는 무수한 개인들 또한 쉽게 움직이거나 변화될 수가 없다.

### 나이로부터의 해방은 사회구조와 싸우는 일

다시 말해 한 개인이나 집단이 나이 차의 폭력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실상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구조 전체에 대해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아이에게 세상을 순리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대신 어떻게 비틀어져 있는가를 알아듣게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 왜 나타나는지 또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예를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 목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차의 폭력을 문제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물론 앞서 말한 도덕적 문화적 경각심과 노력은 충분히 강조돼야 한다. 그러나 체제 전반을 고려하는 시각과 행동 없이 이런 노력은 필시 사상누각에 그칠 것이다. 나이 차별의 폭력을 극복한다는 것, 그것은 이 살벌한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보편적인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안이다. 삶의 양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나이 차이의 성토는 공허한 탁상공론인 것이다. ■

**김상태**씨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문화평론가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다. 《1990년대 한국사회 SEX라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들》《프리섹스주의자들에게》《신의 하렘》 등을 펴냈다.